

8.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치·경제 동향

가. 일반개황

| | | |
|-----------------------|------------|--|
| 일 반 민 언 종 | 위 치 | : 카리브해 중앙, 쿠바 남동쪽 |
| | 면 적 | : 49천 km ² (한반도의 1/4) |
| | 기 후 | : 아열대 |
| | 인 구 | : 9.5백만 명(2009) |
| | 수 도 | : Santo Domingo(270만 명) |
| | 민 족 | : 메스티조 및 물라토(73%), 백인(16%), 흑인(11%) |
| 정 치 | 언 어 | : 스페인어 |
| | 종 교 | : 가톨릭(95%), 기타(5%) |
| | 독 립 일 | : 1844. 2. 27(아이티) |
| | 정 부 형 태 | : 대통령중심제(공화제) |
| | 국 가 원 수 | : Leonel Fernandez 대통령 |
| | 의 회 | : 양원제(상원 32석, 하원 176석) |
| 경 제 | 주 요 정 당 | : 도미니카해방당(PLD), 도미니카혁명당(PRD), 기독교개혁당(PRSC) |
| | 국제기구가입 | : UN, IMF, IFC, IDA, IDB, CARICOM, CDB, OECS 등 |
| | G D P | : 459억 달러(2009) |
| | 1인당 GDP | : 4,832달러(2009) |
| | 화폐단위 | : Dominican Peso(Ps) |
| | 회계연도 | : 1. 1 ~ 12. 31 |
| 제 | 산업구조(2009) | : 제조업 21.3%, 농수산업 10.5% 서비스업 68.2% |
| | 주요수출품 | : 니켈, 설탕, 코코아, 커피, 금, 은 |
| | 주요수입품 | : 식품, 석유, 섬유, 화학제품, 의약품 |
| | 주요부존자원 | : 니켈, 금, 은, 보크사이트, 관광자원 |
| | 경제적강점 | : DR-CAFTA 가입국 |
| | 경제적약점 | : 취약한 수출구조, 과다한 외채부담 |

나. 약사

- 1492년 12월 5일 : 콜롬부스의 제1차 항해시 발견
- 1822년 : 아이티가 점령하여 이후 22년 동안 통치
- 1844년 : 아이티에 대한 투쟁으로 독립
- 1930~61년 : 뚜루히요(Rafael Leonidas Trujillo) 독재정치 지속
- 1962년 : 1924년 이래 처음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도미니카혁명당(PRD)의 보쉬(Juan Bosch)가 대통령으로 당선
- 1966~78년 : 기독교사회개혁당(PRSC)의 Joaquin Balaguer Ricardo가 3차례 연속 대통령에 당선되어 12년간 집권
- 1978~86년 : PRD의 Antonio Guzman과 Salvador Jorge Blanco가 2차례 연속 집권
- 1986~94년 : 전직 대통령 Joaquin Balaguer Ricardo가 재집권
- 1994년 : Joaquin Balaguer Ricardo가 대통령에 재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 시비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한편, 연임금지 헌법 제정
- 1996년 : 도미니카해방당(PLD)의 페르난데스(Lyonel Fernandez Reyna) 대통령 취임
- 2000년 5월 : PRD의 메히아(Hipólito Mejía Domínguez) 대통령 취임

- 2004년 5월 : PLD의 前 페르난데스 대통령 재취임
- 2008년 5월 : PLD의 페르난데스 대통령 연임 성공으로 재취임.

다.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단위 :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f |
|---------------|------|------|------|------|-------------------|
| 경 제 성 장 률 | 10.7 | 8.5 | 5.3 | 3.5 | 4.0 |
| 재 정 수 지 / GDP | -1.2 | 0.2 | -3.4 | -3.5 | -3.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0 | 8.9 | 4.5 | 5.8 | 6.8 |

□ 2008년 이후 경제성장세 둔화

- 2005~07년 동안 물가안정과 더불어, 관광산업, 통신업 등 주력산업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8.5~10.7%의 고도성장을 지속함. 그러나 2008년에는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전력난 지속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세는 5%대로 낮아졌음.
- 2009년에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 둔화, 외국인투자 축소로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에 힘입어 건설업과 통신업 등이 크게 호전되어 2009년 전체로는 3.5%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금년 들어서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5%에 이르는 등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 증가와 민간 신용공급 확대로 내수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 전체로는 4% 이상의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소폭 상승세 전환

-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중앙은행의 억제목표인 6% 내외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2008년에는 국제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락과 경기침체로 인해 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로 낮아짐.
- 2009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공공요금 인하, 내수위축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세 전환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8%로 높아졌음.

□ 재정수지 적자규모 확대

-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음. 특히, 2008년에는 대선에 따른 선심성 지출 확대, 전력, 교통 등 정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4%로 크게 확대되었음.

- 2009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연초 도미니카(공) 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정책의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였으나, 11월 IMF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을 도입한 이후 재정지출을 늘림에 따라 적자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됨.
- 금년 들어서는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 재정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전력부문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 부담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부문의 개혁이 정부의 가장 큰 난제

- 에너지 부문의 개혁은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주요 정책 목표이자 국민적 염원이지만, 높은 빈곤율로 전기료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전 등에 의한 전력손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전력부문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영 전력회사들의 대규모 적자 보전 및 최빈곤층에 대한 전기료 보조금 지원 정책 등으로 매년 대규모 재정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유가 상승세로 인해 화력 위주의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전력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IMF 대기성 차관 지원을 요청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음.

(2) 국제경제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f |
|-----------|--------|--------|--------|--------|-------------------|
| 경 상 수 지 | -1,313 | -2,123 | -4,529 | -2,327 | -3,012 |
| 경상수지/GDP | -3.7 | -5.2 | -9.9 | -5.1 | -6.1 |
| 상 품 수 지 | -5,563 | -6,436 | -9,245 | -6,820 | 7,632 |
| 수 출 | 6,610 | 7,160 | 6,747 | 5,463 | 6,034 |
| 수 입 | 12,173 | 13,597 | 15,992 | 12,283 | 13,666 |
| 외 환 보 유 고 | 2,091 | 2,448 | 2,271 | 2,885 | 2,668 |
| 총 외 채 잔 액 | 8,773 | 10,319 | 11,446 | 12,333 | 13,942 |
| 총외채/GDP | 24.6 | 25.2 | 25.1 | 26.8 | 28.1 |
| D. S. R. | 10.1 | 8.5 | 9.3 | 9.3 | 10.1 |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지속

- 원유 등 원자재는 물론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상품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자본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나,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2005~08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2006년 13억 달러(GDP의 -3.7%)에서 2008년에는 45억 달러(GDP의 -9.9%)로 대폭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규모도 전년대비 약 24억 달러 감소한 6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23억 달러(GDP의 -5.1%)로 축소되었음.
- 금년 들어서는 경기회복세 전환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6.1%인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 활성화

- 2004년 8월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3월 발효됨. 본 협정의 발효로 FDI 유입이 증대되고 있으며, 심화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구조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미니카(공)는 자유무역지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청(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을 운영 중임.
- DR-CAFTA에 대한 기대감, 도미니카(공)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 등으로 인해 2003년 6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는 2008년 사상 최대치인 29.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스페인의 경기침체로 2009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21.6억 달러를 기록함.
 - 연간 FDI 유입액 : 6억 달러('03) → 15.2억 달러('07) → 29.7억 달러('08) → 21.6억 달러('09)

라. 정치·사회동향

□ 페르난데스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으로 2004년 경제위기 극복

- 2004년 5월 대선에서 민족해방당(PLD)의 레오넬 페르난데스 (Leonel Fernandez)가 당선되어 8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함.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996~2000년에 대통령직을 역임했으며, 2004년 재집권 후 경제안정화, 재정수지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및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정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빠른 경제회복세, 물가 및 환율 안정세 회복 등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왔음.

□ 2008년 5월 대선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 연임 성공

- 2008년 5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페르난데스의 재선이 확정되어 동년 8월 취임함.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치안 불안과 PLD당내의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여 지지율이 다소 낮아짐.

- 2009년 1월 28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제위기 타파, 산업발전, 신용경색 해결 등을 위해 국민의회(National Summit)가 개시되었으나, 의회와 일부 사회단체의 참여 거부 등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년 5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

- 금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PRD가 상원 32석 중 31석, 하원 178석 중 105석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둠.
- 특히,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킨다는 헌법 개정내용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기존 4년이 아니라 6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였으며, 여당인 PRD가 압승함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PRD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으로 평가됨.

□ 중미, 미국, EU 등 전방위 실리외교정책 시행

- 2004년 8월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체결하였으며, 수출 진작 및 FDI 유입 활성화를 위해 EU 및 남미국가들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 인접국가 중 아이티와 국경분쟁 및 불법이민자 문제로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협력 및 국경무역의 단속 등에서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베네수엘라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힘입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부터 동국 석유수입량 중 40% 이상을 국제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확약을 얻어내기도 함.

□ 사회 안정성은 대체로 양호

-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고 빈부 격차의 정도가 심하며 소수 백인과 기타 인종간의 화합이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사회불안 요인을 안고 있으나, 사회 안정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2007년 S&P와 Moody's는 도미니카(공) 정부가 IMF 협상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점을 들어, 동국의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그러나 2008년 12월, S&P는 미국 및 유럽 경기 침체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축소 전망,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반전, 인플레이 우려 등을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지만, OECD는 도미니카(공)에 대한 국가신용평가에서 최근 몇 년간 5등급의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금년 4월 Moody's는 도미니카(공)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정적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동국 신용등급을 B2에서 B1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OECD : 5등급('07. 6) → 5등급('08. 6) → 5등급('09. 7)
 - S&P : B+('07. 9) → B('08. 12)
 - Moody's : B3('06. 10) → B2('07. 5) → B1('10. 4)
 - Fitch : B-('05. 7) → B('06. 5)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한도범위내 인수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잇따른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로 외채상환부담 감소

- 1986년 이후 1991년까지 단기외채를 제외한 중장기외채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IMF를 비롯한 채권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91년과 '94년에 파리클럽 및 상업채권단과 총 21.4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 2004년 4월에도 파리클럽과 2004년 만기도래하는 2억 달러에 채무재조정에 합의하여 채무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며, 2005년 5월에는 채권자의 93%가 참여한 가운데 총 11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재조정하였음.

□ 최근 외채와 공공부채 증가 추세

- 도미니카(공)의 총외채는 2005년 이후 환율의 안정세와 경제성장률 호조로 인해 GDP 대비 30% 미만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D.S.R이 10%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상외환수입대비 외채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임.
- 그러나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42%에 이르고 있고, 재정수지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공공부채 원리금 상환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해외차입을 늘리고 있음. 2009년 11월 IMF로부

터 17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자금을 도입하였고, 그 직후 IDB와 세계은행으로부터도 각각 5억 달러와 3억 달러의 신규 차관을 도입하였음.

- 2009년에 도미니카(공) 정부는 총 27.6억 달러의 신규 차입을 일으켰으며, 이중 외채인 해외차입이 19억 달러, 내채인 국내차입이 8.6억 달러였음. 해외차입 19억 달러 중 IDB, 세계은행, IMF 등 다자기구로부터의 차입은 11억 달러였음.

□ 2009년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 신규 도입

- 공영 전력회사들의 대규모 적자와 빈곤층의 전기사용 보조금 정책 시행 등으로 정부 재정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발발 등의 악재로 재정 수입이 전년대비 약 10% 가량 감소하면서 2009년 정부의 재정상황은 악화되어 2009년 11월 IMF로부터 17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도입하였음.

바. 향후 전망

- 도미니카(공) 경제는 물가와 환율 안정, 수출과 내수 경기 동반 회복 등에 힘입어 2006~2007년 중남미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2008년 이후 미국 및 유럽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과 관광업이 부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로 거시경제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지난해 11월 IMF의 대기성 차관 도입 이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V.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사회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향후 페르난데스 정부의 정국 주도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는 등 대외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신중한 거시경제 운영과 경제 성장세 회복으로 당분간 국가채무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